



3면

"쌀값 즉각 안정화 시키라"

2024년 9월 5일 목요일 (음 8월 3일) 제 3582호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 (063)288-9700

전북의 가치 유럽에 널리

도, 네덜란드서 '2024 공공외교 한마당' 레이던대학서 김관영 도지사 특강 진행 7일 주 네덜란드 한국대사관과 문화축제

전북특별자치도가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네덜란드에서 '2024년 공공외교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의 풍부한 문화유산의 홍보에 그치지 않고 산업, 관광 분야까지 아우르는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전북의 가치를 유럽에 널리 알리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전북자치도가 네덜란드와의 실질적인 교류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무대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기 위한 것으로,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 구축에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3일(현지 시간) 네덜란드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고, 유럽(러시아 제외) 최초, 한국학 강좌를 개설한 레이던대학에서 전북의 가치를 알리는 공공 외교활동이 진행됐다.

먼저 김관영 도지사는 한국어학과 학생과 교수진 200여명을 대상으로 '조금, 특별한 문화 이야기'라는 주제의 특별강연 갖고 전통과 현대적 가치가 어우러진 문화적 자산의 중요성과 이를 잘 보존, 계승, 발전시키고 문화를 통한 세계와의 소통을 꾀하는 전북자치도의 노력을 소개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강연에서 "한국과 네덜란드 간의 상호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여러분 모두가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적 유산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보고 싶은 한국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사)세계사에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 호암 운영용 선생이 주관한 '한글 탁본 뜨기'와 '한글 이름 써보기' 등의 서예 강연, 전북자치도 도립국악원의 차복순 명창의 관소리 공연과 강연을 펼쳐, 참가 학생

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다. 또 오는 7일에는 주 네덜란드 한국대사관과 공동으로 '한국문화축제 행사'를 연다.

이날 행사에는 네덜란드 외교부 한국담당관을 비롯해 주네덜란드 주재 각국 외교관 및 한국참정용사협회 회장, 로테르담 한글학교 교장, 박연협회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부 행사에는 전북홍보관, 한지공예 전시관, 서예 및 한지공예 체험관을 운영하고, 2부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도립국악원의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전북홍보관은 '인연, 사랑, 행복'이라는 테마 아래 전북 기념품 100선을 비롯 전북을 소개하는 다양한 특산품을 전시하고, 행사 기간 동안 전북 대표 관광지, 주요현안, 새만금 및 축제 등에 대해 홍보 영상과 책자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전북의 매력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북 특산품을 맞춰라', '웃음으로 선물해 잡아라' 같은 다채로운 이벤트가 열린다.

2부행사에서는 개회식과 (사)세계사에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운영집행위원장의 서예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이어 전북도립국악원의 전통무용 '부채춤', 창작무용 '버꾸춤', 춘향전 중 '사랑가', 가락 '삼도 설장고', 창작무용 '시집가는 날', 흥보가 중 '박타는 대북', 창작무용 '홍장' 등 다양한 공연이 연이어 펼쳐지며, 전북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다채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네덜란드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 하고, 유럽(러시아 제외) 최초, 한국학 강좌를 개설한 레이던대학에서 3일(현지시간) '조금, 특별한 문화이야기'라는 주제로 한국어 학과 학생 및 교수진을 대상으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특강이 진행된 가운데, 김 지사와 전북대표단,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제공)

'농어촌 식품사막화, 우리 곁 현안 됐다'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전북 행정리의 83.6%, 식료품 살 수 있는 마을 점포 실종 협동조합 식료품점 개설·식료품 바구니 정책 등 제안

도내 농어촌지역의 식품사막화가 확산해 지면서 농어촌주민들의 건강권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 등 삶의 질을 유지시키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사막'이란 용어는 1990년대 초반 스코틀랜드 서부에서 도입된 용어로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을 지칭한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 4일 '농촌지역 식품사막화(Food Desert)의 의미와 과제'를 다룬 이슈 브리핑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사막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선제적인 정책적 논의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북연구원은 지난 2020년 농림어업조사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북자치도내 행정리(5,245개) 중 83.6%가 마을에서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점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식품 소비행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농어촌 가구는 오프라

인 식료품점을 주 1회 이상 방문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 중 78.6%로, 85.9%인 도시보다 낮았다.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입하지 않는 농어촌의 가구는 전체 중 59.0%로 31.8%인 도시보다 커 식품 접근성이 크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의 인구감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소매점이 없는 농촌 마을의 증가는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연구원은 인구감소와 더불어 열악한 대중교통 시스템, 농어촌사회의 네트워크 약화, 대형 유통업체의 부재,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 공급의 불안정성 등도 식품 접근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민건강통계를 보면 농촌 주민의 과일류, 육류, 우유류 등의 섭취량이 도시민에 비해 낮았으며, 농촌의 영양 섭취 부족자 비율이 두드러져 있는 실정이다.

전북연구원은 식품사막화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사막 지도를 제작해 관리해야 하며, 협동조합 식료품점 개설, 식료품 바구니 정책, 식품 사막화 지수 등을 제안했다.

행정리의 식료품 소매점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해 식품 및 생필품 유통시스템을 개선시키면서 주민의 건강관리, 영양교육, 생활 돌봄 등을 위한 정책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 식품사막화와 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동조합 식료품점을 지역적 특성에 따라 이동식 점포 또는 상시 매장으로 운영하는 정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인 노인을 위해 권장 영양 섭취량을 고려한 식단을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어르신 식료품 바구니 상품권'을 제공하고 이를 식료품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지역별로 농촌 주민의 식품 접근성 현황을 정량적으로 수집·관리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식품 사막화 지수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 금암동 거북바우마을 '우리동네살리기' 공모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4일, 2024년 국토교통부 '우리동네살리기 신규공모'에서 전주 금암동 거북바우마을이 최종 선정돼 국비 5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쇠퇴한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등의 사업비를 지원해 구도심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전주 앞금암마을은 '안전을 넘어 행복으로 가는, 앞금암 거북바우마을'이라는 주제로 총사업비 109억 원(국비 5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앞금암마을은 60~70년대 시기까지 확장에 따라 저층 노후 주거지가 밀집된 지역으로,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90.2%에 달하며, 고령자 비율이 높아 주거 및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사지에 위치해 도로 단절과 좁은 골목길 등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2010년에 폐교로 방치된 구)금암고등학교는 6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로 재해위험, 우범지역화, 쓰레기 무단투기 등 문제가 발생해 철거가 시급했다. 이번 공모 선정은 도와 전주시, 지역 국회의원이 협력해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한 결과다. /이만호 기자

제17회

정읍 구절초 골동축제

2024. 10. 3(목) ~ 10.13(일) 구절초 지방정원
(정읍시 산내면 매죽리 571)

개막식 및 축하공연
10월 6일(일) 오후 5시
※ 야간 불꽃쇼 : 오후 7시 30분

사회자
개그맨 김재룡 (재육)

출연가수
김다현, 박창근, 김용임, 박강성

명사 초청강연
10월 12일(토) 오후 4시

강연자
개그맨 김영철